



서길원 大記者
독자와 함께 詩 읽기

최고와 최악의 순간

시행 하나하나가 잠언(가르쳐서 훈계하는 내용의 시) 같은 느낌을 주는 시라 하겠다. 그 시행을 나열해 보자.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 최악의 시간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일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 읽고 나니 ‘동그란 길’의 의미를 대충 알겠다.
지구가 둥글어 어느 지역에 해 뜨면 다른 지역에 해가 지듯이 우리네 삶도 그렇다는 길.
살다 보면 막힘없이 확 뚫린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곧 끝나고 도저히 헤쳐나가기 험난한 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살다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을 향해 달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한순간 나락으로 빠져 헤어날 수 없을 때도 있다.
살다 보면 내가 기뻐할 때 저쪽 누군가는 울고, 저쪽 누군가가 함박웃음 터뜨릴 때 나는 목청 찢어지게 곡(哭)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우리네 삶은 동그랗게 돌고 돈다.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늘 행복만, 늘 기쁨만, 늘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여기는 순간 불행은 내 방 문턱을 넘고, 기쁨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는데 갑자기 마

(魔)가 끼어 망치기도 한다.
그래서 시인은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이라 했다.
최고와 최악의 순간, 다들 최고의 순간만 기대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삶이 재미있을까?
필자가 가장 주목한 시행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이다. ‘인간의 위엄’, 무슨 뜻일까?
인간다운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삶, 말로는 쉬우나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일.
남의 아픔을 걱정하며,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며, 가진 것 나누며, 약자를 배려하는 삶, 오늘날이라도 우리 모두 동그랗게 살아 보자.
‘동그란 언어’를 서로 나누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동그란 길로 가다

박노해 作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

<2012년>

▶박노해 시인(1957년생, 본명 박기평) 함평 출신으로 일반적 등단 과정을 거치

지 않고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냄으로 등단.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가족 지키는 작은 실천, 아파트 화재 예방서 시작



박 경 수
/신안소방서 119구조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간을 함께 쓰는 아파트는 편리함이 크지만 그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생활 공간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주방 가스 불 조심, 전기제품 과열, 베란다 적치물 화재 등 작은 부주의로 인한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복도나 계단에 쌓인 자전거, 폐가구 등은 화재 상황에서 대피를

막아 피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방심에서 시작되는 습관의 결과다.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전 가구에 대해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화재 대피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등 취약세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기장판 안전하게 쓰기 캠페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다.
‘불 나면 대피 먼저’라는 말처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보다 더 중요

한 건 미리 준비된 안전 환경과 인식의 변화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공동체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아파트,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산불예방과 대응요령 숙지



조 원 군
/광양소방서 광양119안전센터장

봄기운이 계속되면서 활짝 핀 봄꽃을 보기 위해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 등 유동 인구가 특히 많고 캠핑·나들이를 통해 낭만과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건조하다. 특히 연일 건조 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야외에서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매년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산불은 우리의 불성실한 행동

에서 비롯된다.
부주의한 실수 한 번이 어떤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모두 알고 있을 거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이 빈발하는 가운데 자연을 지키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모두가 지켜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방서에서는 산림 내 위치한 문화재, 전통사찰, 건축물 등에 대한 합동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출동 차량을 이용해 관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기동순찰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소방서의 노력과 함께 봄철 건조기에 발생하는 임야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인식과 노력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산과 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 야영, 흡연을 자제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

는 추세여서 모두의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이미 산불이 발생했으면 일반 화재와 마찬가지로 소방서, 산림청, 경찰서,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불씨가 피어나는 초기 화재는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흙을 덮어 끄는 게 효율적이다.
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

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불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만 잘못 다루면 나쁜 주인으로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각자 개인도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형 산불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과 대응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광 고 국 (062) 363-0005
편집국(FAX) (062) 362-0078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인쇄저서영코아 (031)466-1000

편 집 국 장 (062) 363-8800
정·경 부 (062) 362-6116
사 회 부 (062) 362-6226
문 체 부 (062) 362-6116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안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894
두 암.....266-1920
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02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합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